세상살이 희망 불구자의 판정승

(욥기 17:1~16)

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6.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살이 희망 불구자의 판정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살이 희망 불구자의 판정승'

인디언의 일화 중에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중간에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걸음이 느린 영혼을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움직이는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몸은 말을 타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나의 영혼이 몸을 쫓아오지 못할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포괄적으로 목적지향적인 삶이 맹목적이 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목적만을 바라보다보면 목적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매달리다보면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동안 자녀와 보낸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간을 경제성장을 향해서 달리다보니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다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도착해야 될 지점에 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한다면 이미 마음은 부산에서 만날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탄 사람이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은 뒤쳐질 리가 없습니

다. 오히려 영혼과의 간격이 생긴다면 그 이유는 영혼이 앞서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5년 뒤에 10억을 모으고 싶은 꿈을 갖는다면 내 마음과 영혼은 이미 5년 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영혼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뒤쳐짐이 아니라 앞서감이라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목표지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과 차이가 나는 미래의 목표지점을 없애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욥기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1~2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충동함이란 친구들이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한 가운데 욥을 질책함을 뜻합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자신의 재앙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보여준다기보다 욥의 태도가 친구들보다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재앙에 대한 관점이 누가 더 정당하고 옳은지를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께 보장하고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상황과 입장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에 그들이 옳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욥과 같은 상황을 보면 친구들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면서 그 행동이 옳음을 믿으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려 합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1~12절을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라고 합니다. '밤으로 낮을 삼았다'라는 것은 희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형편은 재앙을 만나서 밤과 같이 어둡지만 얼마든지 밝은 낮처럼 개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두움을 탄식하기보다는 회개하며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욥이 겪는 재앙은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에 회개함으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욥은 희망을 갖기를 근본적으로 거절합니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욥은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재앙이 임했어도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구하지 않는 태도를 친구들보다 정당한 것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판정승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김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희망을 자동적으로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희망 불구자와 같은 정신적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허락한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욥과 같은 희망 불구자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단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단계 없이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급하게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선 이해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구원을 고집하는데 이 믿음 안에는 희망 불구자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맞고, 또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도 맞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희망 불구자의 단계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희망을 가지고 개선될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희망 불구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 불구자에게 판정승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인디언의 일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미래의 목적지를 향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미래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모르는 것은 욥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미래라는 화면에 우리의 희망을 투사합니다. 흔히 원하는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투사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욥은 희망 불구자로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오직 지금 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체성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면 그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내가 말을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까지 왔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에나 수원에 있을 때에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위에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는 언제나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욥은 자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켜서 복을 끌어들이거나 좋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과 주도적 섭리만이 그것들에 관여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신적 구조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시기 전에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지금의 상황이 개선된 미래를 향해 달려 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부모 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면 부자 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면 남편 됨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래의 나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래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를 잃어버릴 때에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이미 아담 속에서 태어날 나에 대한 계획 또한 갖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에덴에서 살게 될 터였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본래의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의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잃지 않아야 아버지 됨이 유지되고, 아내를 잃지 않아야 남편 됨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본래의 나를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나를 잃은 것이고 나의 삶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지금 나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떼고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미래에 투사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자 본래의 나를 잃게 되었고 이어서 본래의 내가 살아가야 될 터전으로서의 에덴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희망을 바라볼 구조 자체가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옳다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주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때에도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의 주관하심으로 여기셨던 것이고,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할까요?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체성만을 바라보았던 욥에게 실제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희망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단계가 오기 위해서는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희망 불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100%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살이는 근본적으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애를 낳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먹고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과 같은 생각은 복음 속에 끼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살이가 100%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이끌려 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주체성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주체성의 영역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희망 불구자가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희망하게 되고 기도함으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주변을 볼 때에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수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되는 사람들도 나오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기뻐지면 도대체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여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진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주체성은 100%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며 안타까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바깥에서 섭리하실 수는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갑삼아 그 주체성을 나타내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100%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세상살이의 희망 불구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요청할 때에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망 불구자가 되면,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에 내 마음이 따라 올라가면, 주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느끼시는 그 기쁨이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 내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대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 변화산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변화하신 주님을 뵙고는 산 아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소원을 잃고 희망 불구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웃사랑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 불구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온 세상이 희망을 가지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나만 희망 없이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세상살이에 대한 희망 불구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100%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